#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2, 여섯째 인에 관한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 막간을 설 수 있는 사람.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이 12회기, 여섯째 인의 계시록 6장, 그리고 막간을 설 수 있는 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봉인에 나오는 성도들의 외침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고, 여러 번 우리는 다섯 번째 봉인과 소위 복수의 외침을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제가 실제로 구약의 일부 시편과 일부 예언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를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이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즉 무신적이고 억압적인 제국의 손에 고통받고 죽은 자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옹호하심으로써 그들을 옹호하실 것이지만, 또한 그들을 억압한 자들과 그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처벌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그들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두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으로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복수를 외치는 성도들, 즉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중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그림이며 흰옷은 그들이 지금 받는 부활의 몸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으로 인해 목베임을 당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는 이것이 부활한 몸을 받는 성도들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장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20장은 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입증되고 살아나면 살아나서 이 땅에서 받은 대우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통치할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대신,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흰옷은 승리와 심지어 의로움뿐만 아니라 순결까지도 암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3장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 하나인 사데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4절)에서 사데에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흰색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흰색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고 로마 제국과 타협함으로써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의 순수함과 대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우상숭배적이고 신이 없는 예배 제도.

대신 그들은 순수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흰옷이 그들의 순결과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흰옷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들의 의로움과 순결함, 그리고 그들의 승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증언이 쓸모없고, 그들이 헛된 고난을 당했으며, 짐승과 죽음에 의해 정복당했다는 세상의 판결을 이미 뒤집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승리와 의와 순결을 나타내는 흰 옷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흰 두루마기를 주신 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가 완성되고 이행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숫자나 미리 결정된 숫자, 또는 적어도 아직 순교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죽음을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적어도 있다고 암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흥미로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또는 그들의 증인, 그들의 충실한 증인을 위해. 그리고 그 수는 채워져야 하고, 그 수는 하나님이 오셔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피를 갚아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변호하시기 전에, 그 수는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유대인 묵시록이나 본문에서 그 개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에녹서와 다른 책들, 구약과 신약에 포함되지 않은 유대 묵시록 본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두 가지 정경적인 예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문학의 종류. 그리고 때로 이 책들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기 때문에 종종 요한이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일부 유대 묵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와 생각과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묵시록에서 우리는 정해진 수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정해진 수의 사람들이 전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개념을 발견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위한 그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심판. 예를 들어 에녹서는 우리가 앞서 간략하게 읽은 에녹상서인데, 에녹전서 47장에서는 그 당시에 의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의인의 기도와의 연관성은 요한의 묵시록과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 의인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에 의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의인의 피가 땅에서 영의 주 앞에 이르렀느니라. 위로 하늘에 거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거하는 날이 오리라

그리고 한 소리로 의인들이 흘린 피를 위하여 영들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영혼의 주님 앞에서 지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그들은 영원히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보니 옛적부터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살아 있는 자들의 책들이 펴 있고 위로 하늘에 있는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동행자들이 그 앞에 섰으니 의인의 수효가 드리고 의인의 기도가 들으시고
의인의 피가 영의 주 앞에 드려짐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그리고 그 문구, 의인의 수, 그리고 다시 피흘림을 받은 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 개념을 연결하고, 이어서 지금 드려진 특정한 수와 관련하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리라. 우리는 에스라서 4장으로 알려진 또
다른 매우 인기 있고 중요한 묵시적 작품에서 비슷한 생각을 발견합니다. 에스라
4장 4장과 33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다시 에스라 4서는 선견자가 환상을 보고
천사적 존재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는 책이지만 환상적 자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장과 33절부터 37절까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나서 나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또 다시 그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왜 우리의 나이가 적고 악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화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가장
높으신 자보다 더 빨리 서두르지 아니하노니 너의 급한 것은 너를 위한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서두르심이니라.

자기 방에 있는 의인의 영혼이 이 일에 대하여 묻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하겠느냐고 묻지 아니합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섯째 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의 추수는 언제 올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입증될 것인지를 위해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판단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 완성되며, 언제 심판하러 오시겠습니까? 천사장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와 같은 자의 수효가 차거든 그가
만년과 천칭을 달며 시간을 척량하며 그 때를 숫자로 세었은즉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 조치가 성취될 때까지 그들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에녹서 1서와 에스라 4서에는 이 두 작품에서 정해진 수 또는 여전히 순교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때가 차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옹호하고 온전히 보상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에녹 1서를 읽든 에스라서 4장을 읽든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마도 정해진 수,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의 지정된 수, 아마도 정해진 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만, 그것이 완성될 때만 하나님은 묵시문학에서 발견되는 개념을 끌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한 신원을 베풀고, 그들의 피를 갚아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묵시문학에서 나온 이 모티브의 사용은 지연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아마도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이제 그것은 순교자의 영혼인 사람들의 목소리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시 입증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정하신 때가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정해져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정확한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요한은 지연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 생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다른 두 교회에게 다시 이것은 다음과 같은 확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더라도 그들의 고통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의 피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여섯 번째 인봉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다섯 번째 인봉에 대한 질문과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자들의 영혼인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적어도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여섯 번째 인입니다. 얼마나 오래?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봉인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심판을 퍼붓기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이 마지막 봉인에서 저자는 우주적 격변과 별자리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대한 개념 또는 환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구약성경 본문의 언어를 다시 한번 암시하고 그 언어로부터 끌어냅니다. 온갖 엉뚱한 일을

하는 우주와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이미지 등, 분명히 우주 전체가 해체되는 전체 종류에 대한 은유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 보면, 요한은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염소털로 짠 베옷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온 달이 피처럼 붉게 변했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에서 큰 바람에 흔들려 늦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라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바위와 산 사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회 경제적 스펙트럼에 따른 모든 스펙트럼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바위산과 넘어진 우리를 불러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웠으니 이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고 능히 서실 수 있는 그 날이 이르렀음이라.

그리고 그 큰 날의 언어는 아마도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날 언어를 반영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끝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믿지 않는 악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또한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옹호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구약의 예언 본문, 즉 심판의 언어를 차용하여 예언 본문에서 찾은 단순한 이미지 또는 표준 언어를 다시 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이 언어를 마치 당신이 이날 밖에 서 있으면 실제로 달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운석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늘이 말려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상징의 언어로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전임자들에게서 상징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은 이사야 24장과 34장이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 24장과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시키실 것임을 보십시오. 그는 그 얼굴을 망치고 그 주민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제사장이나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 주는 사람이나 빚진 사람이나 채권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약탈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마르고 시들어집니다. 세상은 시들고 시들어갑니다. 대지의 고귀한 자들은 괴로워합니다.

땅이 더럽혀진 것은 땅의 백성이 법을 순종치 아니하고 율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리고 나는 그 본문 24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회 경제적 계층 전체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황폐화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이사야서 34장과 4절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별의 모든 별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든 무화과 같이 떨어지리라. 언어가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인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2장에는 읽어볼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인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 2장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내용이 10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다시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선지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일련의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것이 엄격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시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자신도 이 언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종말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다소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변적인 사건이나 땅이 흔들리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미지나 은유입니다. ,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완전한 해체와 해체를 암시하는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으로 우리는 마침내 끝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기 위해 오실 때이며,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제 주의 날이 열리며, 이는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봉인아, 지금 누가 외치고 있니, 언제까지냐? 이제 우리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백성을 압제하고 짐승을 따르고 이교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자들 사이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든 사회 경제적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도래하여 우리를 역사의 종말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7번 봉인은 아직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고, 이것은 다음 일곱 시리즈인 나팔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6개와 7개는 분리되거나 분리되고, 중간에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몇 번 말했듯이 7번 봉인이 8장 시작 부분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 중간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식해야 할 또 다른 점은 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위 속에 숨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도망치려는 공포와 공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이미지이지만 17절의 본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숨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누가 설 수 있는가로 끝이 난다.

이제 이 질문은 7장에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는지, 누가 6장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정점에 달하는 이 재앙들을 대항할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그걸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7장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7장은 일종의 6장과 6장과 8장 사이의 막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장과 7장을 봉인하고 마침내 8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기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7장은 일탈이나 인봉 순서 사이, 즉 여섯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무분별하게 삽입된 것이 아닌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본 것처럼, 6장은 누가 설 수 있는가?로 끝나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누가 6장의 인을 견디고 마지막 심판 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막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8장과 9장에서 네 일곱 나팔 심판의 형태로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즉 7장은 6장의 사건을 더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즉, 7장은 6장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7장을 주목해 보세요. 1절은 이 일 이후 또는 이 일 이후로 시작됩니다.

즉, 이것은 요한이 6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본 이후의 환상적 순서입니다. 이제 그는 7장의 사건을 보지만, 7장은 다시 돌아가서 다음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즉, 7장은 단순한 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7장에 설명된 사건들을 더 자세히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7장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조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7장의 두 섹션에서 소개되는 두 개의 중심 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7장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 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더라.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 후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

유다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는 12,000명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잇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명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내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태양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않을 것이며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내가 말했듯이, 7장은 이 두 그룹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적어도 이 두 그룹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소개받았고, 질문은 '그들의 서로 관계는 어떻습니까?'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같은 그룹인가요? 이 그룹이 언급되는 것과 동일한 그룹인가요? 이 두 그룹은 별개의 그룹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두 그룹은 첫 번째 그룹으로, 인침을 받은 14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본문에 열거된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입니다. 그리고 9절에 두 번째 그룹이 소개되는데, 이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각 그룹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일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John의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7장에서 요한의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천국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지구상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000명의 인봉은 아마도 지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요한의 관점은 다시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이 하늘과 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가 보좌, 즉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큰 무리를 볼 때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아마도 4장과 5장의 하늘 뜰 장면, 즉 하나님의 하늘 보좌실과 같은 무리일 것입니다. 이제 7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8장에서 그는 지상의 관점이나 지상의 장면으로 다시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그룹, 즉 144,000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흥미롭게도 저자가 12지파 각각에서 인봉된 14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하기 전에 환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 네 모퉁이에 있는 한 천사 또는 네 천사의 환상을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 4의 중요성에 주목하세요. 4는 땅을 상징하고, 4는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땅의 네 모퉁이를 나타내며, 이는 지구 전체, 즉 지구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이 네 가지 바람이 무엇이며 왜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네 바람은 적어도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바람은 묵시문학과 구약성서에서처럼 파괴와 심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 바람은 아마도 나와서 재앙의 형태로 땅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처음 네 마리의 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재앙, 특히 나팔 재앙이 땅과 물과 바다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닥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이 네 가지 바람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6장에 나오는 재앙은 아마도 8장에 나오는 바람이 땅에 나와 땅과 바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바람, 즉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절입니다. 그때 요한은 동방에서 오는 천사를 보고 144,000명을 인봉하겠다는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분명히 에스겔서 9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대략 에스겔서의 정확한 순서를 따른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4장과 5장은 에스겔의 알현실 환상인 에스겔 1장과 2장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인 치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바람이 떨어져 그들을 황폐시키기 전에 재앙이 사라지기 전에 내려와 그의 백성을 인봉하는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를 입지 않도록 봉인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 그들이 모든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으로 인해 요한은 그의 백성이 참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그들의 유업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그들은 이제 인침을 받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144,000명의 질문은 요한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흥미 롭군.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44,000명이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4,000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절부터 8절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지파의 목록을 내려가서 각 지파의 수를 12,000명으로 지정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기서 이 숫자들이 엄격한 수학적 정확성이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숫자 12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라는 숫자인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며, 12,000은 1,000의 12배이다.

그리고 144는 단순히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다시 John은 이 숫자를 생각해 내기 위해 12와 12 곱하기 1,000의 배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점은 이 그룹이 누구이든 간에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접근하거나 수학적 정확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존이 계산기를 들고 앉아 이 모든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히 144,000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 인침을 받은 144,000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마도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여섯 번째 인봉에서 144,000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을 강조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4,000명, 특히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민족적 이스라엘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번 언급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특정 방식, 특히 Left Behind 시리즈와 같은 시리즈에서 전달되는 매우 인기 있는 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일단 하나님께서 4장 이전에 그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취에 환난이 있을 기간을 안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 전에 그들은 환난의 기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144,000명을 인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환난 기간 동안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구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래의 환난 기간 동안 인봉하시고 지키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사건을 가리킨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첫 번째 견해와 유사하다고 이해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서 11장과 24절부터 26절, 특히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운명의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을 따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의 끝 부분에서 그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미래 어느 때,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비록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상상하고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 장차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그 사건을 다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상징적이고 매우 상징적인 언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관과 마찬가지로 제1장과는 매우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144,000명이 실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세 번째 보기에는 몇 가지 하위 집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144,000명에 대한 언급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과 심지어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이제는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노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특히 11장부터 22장을 읽으세요. 거기서 바울은 언약의 언어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언어를 취하고 이사야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성전 언어는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가족에게 적용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적용합니다. 또한.

아니면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한 베드로전서 2장도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과 같은 본문을 취하고 성전 언어, 왕국, 그들은 제사장 왕국, 왕 같은 나라, 제사장직, 그것을 받아들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취를 찾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적용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약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국가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확장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은 물론 신약 저자들이 현재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포함합니다. 사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방식이며 요한이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언어를 취하여 이제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적용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의 발걸음.

사실 John은 이미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이미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부른 첫 번째 찬송에서 1장, 5절과 6절, 그리고 5장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취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국제적이거나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과 족속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뜻과 운명을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들은 이제 어린 양이 자신의 새 백성인 제사장 나라로 사시고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도 John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교회를 이스라엘 지파 중 144,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였는가? 그리고 왜 그는 그들을 계수하기 위해, 각 지파를 골라서 계수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했을 것입니까? 그 전에 두 가지 사소한 것, 두 가지, 이 목록의 두 가지 흥미롭고 어쩌면 중요한 세부 사항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중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들, 즉 12지파를 열거할 때 구약성서의 목록과 비교할 때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이나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때로 단과 에브라임이 다른 유대 문헌에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아마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우상 숭배적이고 신이 없는 제국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로 그는 이 두 지파를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마도 이것이 가장 쉬운 설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5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목록에는 기독론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함으로써 이 목록이 독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제 그것은 유다 지파의 한 분, 곧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목록의 선두에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5장과 5절 모두,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목록도 창세기 49장과 10절을 반영하며, 유다 지파로부터 약속된 통치자가 있는 곳에서 유다 지파가 수행해야 했던 역할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마도 유다 지파 출신이시며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사시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때문에 목록의 시작 부분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미지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그는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가 그들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상징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유다 지파에서 나시며 이제 자기 나라와 제사장이 될 백성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아마도 문자 그대로 유다의 12지파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은 아마도 각 12지파로부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순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요한이 아마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이 하듯이 구약성경의 언어를 이제 하나님의 신약성서의 백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다시 144,000을 사용하는 이유는 12 곱하기 12, 12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고, 12곱하기 12는 144,000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John은 144를 얻기 위해 12의 배수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 1,000을 곱하면 1,000이 크고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구약의 성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상하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인 맞은 144,000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요한은 12지파를 열거합니까? 아니면 왜 요한은 이 12지파의 전체 목록을 조사하여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추출할 정도로까지 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이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을 각각 12,000명이라고 말할 때,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그룹이 있는 것처럼 엄격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더 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더 작은 그룹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44,000명이 되는데, 이는 실제로 훨씬 더 큰 이스라엘 지파 그룹에서 추출된 작은 그룹입니다. 나는 그것이 John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그룹 중에서 선택된 그룹입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요한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영국 학자 Richard Bauckham이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짧은 설명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책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Richard Bauckham이 쓴 The Theology of Revelation라는 작은 책이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 신학, 누가 신학, 짧은 서신 신학, 후기 바울 서신 등 히브리서 신학의 전체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리처드 보컴이 쓴 짧은 문고판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이 어떤 종류의 문학인지, 그 기능, 읽는 방법, 주요 신학적 주제를 소개합니다. 모든 구절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요 신학 주제를 소개하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고 읽는 부분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장 균형 잡히고 건전한 내용입니다. ,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 데 가장 유용한 입문서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적어도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Michael Gorman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 Reading Revelation Responsibility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경과 문학의 종류에 비추어 읽는 방법,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지, 다른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소개에 가깝습니다. 우리 현대 상황. 따라서 주요 논평 외에 두 가지 매우 유용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Richard Bauckham으로 돌아갑니다. 리차드 보캄(Richard Bauckham)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번호가 매겨진 부분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정하실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각 부족의

전투원 수와 군사력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군사력을 결정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인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파 인구 조사는 각 지파의 군사력과 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인구 조사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도 요한이 각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144,000이 더 큰 그룹의 작은 그룹일 뿐이라고 제안하기 위해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여기 있는 교회 전체가 막강한 군대로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파의 언어는 그냥 예를 들어 민수기 1장을 떠올리면 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군대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는 민수기 1장을 다시 보면, 1장부터 시작된다. 1절에 보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년이 되는 해에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인구 조사하되 각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그 반열에 따라 계수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 21절,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각 종족과 가족의 기록에 따라 하나씩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수는 46,500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John은 기호 숫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을 사용합니다.

23절에서 그는 다시 시므온 지파의 수를 셀 때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언어인 시므온 지파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이 언어를 사용하여 12,000 지파에서 의도적으로 민수기 1장과 이스라엘이 국가의 군사력을 결정하기 위해 적격한 군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인구 조사로 계산된

다른 본문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하기 위해 그 언어를 적용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 곧 주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봉을 받고 역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은 이제 나가서 싸우는 막강한 군대로 묘사됩니다. 사실, 이를 더욱 입증하기 위해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14장과 1절부터 4절까지에 144,000명이 나타날 때 그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주목하세요. 또 내가 보니 또 보았고 내 앞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것이니 아마 그 인장은 장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일곱.

내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큰 우뢰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4,000명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순결하게 지킨 자들이니라.

흥미로운 점은 14장에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남자 처녀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확히 구약시대 전쟁 중 요구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우리아는 다윗이 행한 일과 밧세바를 임신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아는 그녀와 동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요구 사항의 일부였습니다. 즉 성적 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과 14명을 더하면 144,000명이 하나의 군대, 즉 전투를 위해 나가는 군사 거주지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쟁을 위해 나가는 강력한 군대로 묘사되지만, 특히 5장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군대인 교회는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고, 이기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고난의 증거를 통해 승리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로마가 6장과 처음 두 인봉에서 했던 것처럼 죽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전투에 나가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죽기까지 증인으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의 백성인 전체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의 비유를 따라 강력한 군대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군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증언을 통해 전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나머지 섹션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7장의 처음 8절에서 첫 번째 그룹인 144,000과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이 12회기, 여섯째 인의 계시록 6장, 그리고 막간을 설 수 있는 계시록 7장입니다.